

주니파의 솔루 관찰 일기: 출생부터 15주까지

관찰은 몬테소리 육아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아기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동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비형식적으로(informally) 아기를 관찰한다. 반면 관찰 과정을 기록하는 것에 전념할 때는 과학자처럼 형식적으로(formally) 관찰한다. 이 형식적 관찰(formal observation)은 아이의 발달을 기록하는 데 기여한다.

『베이비 몬테소리 육아대백과』의 저자 주니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그녀의 아들 솔루의 종합적인 면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관찰 노트를 통해 그녀가 아기를 어떻게 관찰했고 무엇을 기대했는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녀의 관찰 기록은 그녀가 솔루의 환경을 어떻게 준비하고 조정했는지 알려 주고, 솔루가 시기별로 어떤 것을 발달시키려고 노력했는지 보여 준다.

★ 생후 1개월 관찰 기록

환경(모든 것을 위한 공간): 우리는 수면 공간, 식사 공간, 활동 공간, 기저귀를 가는 공간을 만들었다.

수면 공간: 우리는 접이식 배시넷(bassinet, 바구니같이 생긴 아기 침대)을 사용한다. 이것은 공간을 덜 차지하여 침대 옆 테이블이나 때때로는 침대 위에도 쉽게 놓을 수 있다. 우리는 생후 2개월 동안 몇 번 여행해야만 했고 접이식 배시넷이 여행할 때 사용하기 쉽다는 것을 알았다.

식사 공간: 우리의 방 모서리에 의자와 수유 쿠션이 있다. 또한 물 한 컵, 엄마인 나를 위한 비타민, 책 한 권, 간식, 나의 휴대전화, 그 밖의 수유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올려놓는 작은 스톨이 있다. 솔루는 원하면 언제든지 먹고 잔다.(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잔다.) 우리는 그가 새로운 환경과 낮과 밤의 변화에 적응하는 동안 그의 생체 리듬을 존중하고 있다. 나는 처음부터 오직 모유 수유를 하고 있다. 나는 한쪽 젖을 먹인 후에 충분히 비우고 나서 다른 쪽 젖을 수유한다.(이 방법은 아기가 어떤 쪽의 젖을 먹었는지 메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쪽 젖에서 이어서 수유를 할지 알 수 있다.) 나는 스케줄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솔루가 스스로 젖을 먹을 때를 안다. 그는 잘 먹고 3시간 동안 배고파하지 않는다.(모든 아이가 다르기 때문에 생후 1개월 동안 당신의 아기가 더 자주 먹기를 원하는 것은 괜찮거나 정상이다. 그의 요구를 충족해 주면 그는 서서히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기저귀를 가는 공간: 우리가 기저귀를 가는 동안 아기가 어른의 행동을 지켜보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다. 우리는 기저귀 가는 과정을 항상 일관되게 했고, 기저귀를 가는 동안 아기에게 말을 해 준다. (예를 들면 “나는 네 바지를 벗기는 중이야. 나는 네 다리를 들어 올릴 거야.”)

활동 공간: 작은 매트나 매트리스, 거울과 모빌이 있다.

토폰치노: 나는 이 작은 베개에 대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솔루는 토폰치노 위에서 자고, 휴식을 취하고, 몸무게를 쟀다. 솔루가 태어나고 이틀 뒤에 우리 가족 8명 정도가 우리 집에 방문했고 돌아가면서 그를 안았는데 토폰치노 덕분에 그는 깨지 않았다. 토폰치노는 질서와 안정의 또 다른 감각을 제공한다. 토폰치노 덕분에 아기가 우리 품에 안겨 있거나 잠이 들었을 때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는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옷: 우리는 처음부터 천 기저귀를 사용했다. 천 기저귀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고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

다. 아기가 축축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배변 훈련에 도움이 되는 기술인 젖었을 때의 자극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가능하다면 생후 첫 두세 달은 기저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우리는 솔루를 단단히 감싸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그가 졸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할 때는 얇고 가벼운 담요를 덮이거나 바지를 입히지만 항상 그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고려한다. 생후 첫째 주에도 우리는 그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관찰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움직임이 자유로운 상태로 옷을 입히는 것은 아이들이 반사 운동을 연마하고 훈련하게 한다.

신생아 셔츠: 보디슈트(onesie) 대신에 우리는 가장자리에 똑딱이 단추가 있는 셔츠를 입혀 기저귀를 쉽게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솔루의 머리 위로 셔츠를 잡아당기거나 탯줄 멍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서 셔츠를 벗길 수 있다. 신생아 셔츠와 기저귀 또는 가끔 양말 한 켤레가 생후 1개월까지 그의 옷장을 차지했다.

우리는 손싸개를 사용하지 않았다. (손은 자궁 안의 태아 때부터 삼는 기준점 중에 하나다. 임신 중에 초음파 검사를 했다면 아기의 얼굴 옆에 있는 손을 봤을 것이다. 생후 1개월 때 아기는 흔히 손을 얼굴 옆에 갖다 대고 있다. 손싸개를 씌우면 아기가 이런 기준점을 인식하는 것을 막는다.) 솔루를 출산 센터에서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의 손톱은 길었다. 첫째 날 밤 나의 엄마는 아기의 손톱은 스스로 탈락한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솔루의 손톱을 다듬으려던 참이었다. 나는 조심스러웠지만 엄마의 지혜를 믿기로 했다. 우리는 생후 2-3개월 동안 그의 손톱을 깎지 않았고 손톱은 자연스럽게 잘려 나갔다. 솔루는 절대 손톱으로 자신의 몸을 긁지 않았다. 보아하니 그의 손톱이 부드러워졌거나 혹은 그가 손톱으로 얼굴을 만져보면서 얼굴을 긁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스스로 배웠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모빌: 우리는 생후 1개월 동안 무나리 모빌과 팔면체 모빌을 사용했다. 솔루는 둘 다 매우 좋아했다. 우리는 가끔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모빌을 가져갔다. 모빌은 그를 평온하게 한다.

대조가 강한 이미지: 솔루는 무나리 모빌뿐만 아니라 흑백 책을 보는 것을 매우 즐겼다.

책: 처음부터 나는 솔루에게 책을 읽어 줬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의 하나는 멤 폭스(Mem Fox)의 『열 개의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Ten Little Fingers and Ten Little Toes)』이다. 그는 이 책을 매우 좋아한다.

음악: 우리는 솔루에게 노래를 불러 주고, 음악을 틀어 주고,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야외로 데려간다. 나는 가끔 임신 중에 들었던 클래식 음악을 틀어 주는데 그의 반응은 정말 놀랍다. 마치 그는 그 음악을 알아보는 것처럼 매우 평온하게 음악을 듣는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다.

터미타임: 솔루가 생후 2주부터 배로 엎드려 있는 시간을 가지는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항상 거울 앞에서 터미타임(tummy time)을 가졌고 그가 안달하거나 피곤해 보이면 바로 그를 뒤집어 줬다. 생후 1개월일 때 그는 잠시동안 머리를 들고 버틸 수 있었다.

아기 띠: 솔루를 데리고 외출할 때 유모차를 이용하는 대신에 아기 띠(Moby wrap 또는 the Eargo carrier)를 착용

한다. 이것은 아기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때 익숙한 기준점을 유지하게 한다. 또한 아기 띠는 아기를 안는 것을 편리하게 한다.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 솔루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모빌(나무, 새, 구름)을 보고, 자연의 경이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매일 주기적으로 바깥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것은 그가 낮과 밤과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고무젖꼭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딸랑이 방울: 나는 생후 3주쯤에 솔루에게 딸랑이 방울을 소개했다. 이것은 주로 아기가 반사적으로 움켜질 때인 생후 2-3개월에 권한다. 솔루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손을 쥐다 펴다 했다. 나는 그가 딸랑이 방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고, 그가 종소리를 즐기리라 생각했다. (우리는 딸랑이 방울을 생후 3개월 때까지 사용했다.)

★ 생후 2개월 관찰 기록

생후 2개월도 1개월과 같이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 다른 점은 솔루가 매일 자신의 능력을 더 의식하고 향상한다는 것이다. 솔루가 생후 2개월 때 여행을 많이 했지만 몬테소리 원칙을 계속해서 지켰다.

질서와 기준점을 유지했다: 우리는 솔루를 안을 때 토폰치노를, 이동 중에 그를 재울 때는 베시넷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저귀 패드를 사용했다. 아기가 독립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흑백 책이나 모빌을 설치할 수 있는 휴대용 매트도 있다. 우리는 모빌을 매다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냈다. 한번은 우리가 모빌을 무거운 도마의 손잡이에 매달고 부엌 조리대의 가장자리에 도마를 놓았다. (솔루의 손이 아직 모빌에 닿을 수 없어서 안전했다.)

다른 모빌을 소개했다: 솔루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나비 모빌이다. (나비 모빌은 생후 6-9주의 신생아에게 가장 매력적인 모빌이며 내 아들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이 모빌을 매우 좋아했다. 고비 모빌로 바꿨을 때 그는 내가 나비 모빌을 다시 가져올 때까지 눈에 띄게 속상해했다.

옷: 이제 솔루는 우리의 움직임에 더 많이 적응했다. 우리는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신생아 셔츠를 바꿨다. 우리는 옷을 벗기기 전에 그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옷을 벗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올인원 기저귀로 바꿨다. 왜냐하면 천 기저귀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 그의 무릎과 발을 벌거벗게 하고 필요하면 양말이나 다리 토시를 입힌다.

자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자연과 야외에서 보낸다. 우리는 등산을 하러 가고 바다로 간다. 솔루는 보통 아기 띠 (Moby wrap 또는 the Eargo carrier)에 있다.

★ 생후 3개월 관찰 기록

솔루가 생후 15주이 되었을 때 이 관찰 기록을 작성했다. 나는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한 지 15주가 지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이 포스팅을 위해 방금 그의 나이를 찾아봤다. 그는 지난 15주 동안 정말 많이 자랐다. 지금 그가 하는 것들의 요약이다.

대근육 활동

- 4분 이상 동안 머리와 어깨를 들어 올리고 버틴다. 이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 (뱀처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미끄러지듯 기어간다. 뒤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것을 더 쉽게 한다.
- 앉아 있거나 넘어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을 때 그는 앉으려고 하는 것처럼 머리를 앞으로 젖힌다.
- 어제 막 그는 (뱀처럼) 스스로 기어가려고 하면서 엉덩이와 배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 뒤집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지만 이것은 순전히 그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추측일 뿐이다.

소근육 활동, 눈과 손의 협응

- 솔루는 매달린 사물에 손을 뻗어 닿으려고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만 아직 몇 번은 닿지 못하고 놓친다.
- 그는 몇 분 동안 물체를 움켜잡고 버틸 수 있다.
- 그는 놀이감을 꼭 쥐 상태에서 놓을 수 있지만 아직은 이 행동이 의도적인지는 불확실하다.
- 그는 손에 쥐고 있는 물체를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
- 오늘 나는 그가 딸랑이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만지는 것을 관찰했다.
- 그는 종종 왼손으로 (사물을) 치고, 뺏고, 잡는다.

언어

- 솔루는 아주 많은 소리를 낸다!
- 그는 누군가 그에게 말을 할 때 조용히 하고 그 사람의 입을 주시한다. 그리고 반응한다.
- 최근에 그는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치거나, 꺾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거나, 그 밖의 다른 큰 소리를 낸다.
- 2주 정도 전에 그는 침으로 풍선을 불고 입술을 가지고 노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 그는 노래 불러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그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Solu ebezina na mummy no nso”이다.
-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소리를 내서 나에게 알린다.
- 며칠 전에 우리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주유를 하려고 멈췄다. 그는 그때 모유를 먹고 있었다. 안이 더워지자 그는 젖을 물다가 입을 떼고 횡설수설했다. 그가 정말로 “왜 차 시동을 켜나요? 나 너무 더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여서 우리는 크게 웃었다.

배변

- 솔루는 하루에 한 번 보통 아침에 배변한다. 그가 꽤 규칙적이어서 난 최근에 유아용 변기를 들여왔다. 우리는 3일 연속으로 두 번 총 6일 동안 사용했고 매번 그는 변기에 앉자마자 방귀를 뀌고 몇 분 후에 배변했다. 그가

배변을 마치면 소변을 누었다.

- 나는 그의 소변을 추적하거나 어떤 패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목욕할 때 오줌을 싼다. 그리고 나는 두 세 시간 마다 그의 기저귀를 갈아 주려고 노력하고 기저귀는 대부분 젖어 있다.
- 그는 천 기저귀를 쓴다.

놀이감과의 교감

- 지금 솔루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감은 퍼즐 볼(puzzle ball)이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주시하고 또한 그것을 잡고 그의 입으로 가져간다.
- 그는 짧은 시간 동안에 거울 보는 것을 즐긴다.
- 나는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원목 모빌을 사용해 볼 계획이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 줄 것이다.
- 그는 책과 교감한다. 몇 쪽의 그림을 그가 가장 좋아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소리를 내서 나에게 알린다.

수유

- 솔루는 그가 원할 때 언제든지 모유를 먹는다. 배고플 때 보통 그는 뒤척이거나 그의 검지를 빨다. 한동안 반응이 없으면 그는 난리를 친다.
- 그는 거의 잠들었을 때나 방금 일어났을 때 잘 먹는다. 다른 때에는 산만해지고 많은 휴식 시간을 갖는다.
- 그는 먹는 동안 여러 번 트림을 시키거나 스스로 트림을 한다. 또한 그는 방귀를 많이 꾸고 가스가 많이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 그는 내가 먹이는 분유에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가스가 찬다.
-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채소를 안 먹을 때 그는 배변 보는 것을 힘들어한다.
- 우리는 최근에 그가 맛볼 수 있게 음식을 입술이나 혀에 닿게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포도, 익히지 않은 요리용 바나나, 사과를 경험하게 했다. 우리는 그것을 그의 입에 가까이 가져와 그의 입술에 문지른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그것을 핥거나 손을 뻗어 잡으려고 한다.

수면

- 솔루는 3-4시간 동안 잔다.
- 그는 최근에 우리 침대에서 자고 잠들기 위해 젖을 먹는다.
- 우리는 현재 그가 낮잠을 잘 때 바닥 침대(floor bed)에서 자도록 바꾸려고 노력 중이다. 그는 우리 침대에서 잘 때도 잠든 지 40분 후에 깨고, 다시 잠드는 대신에 주위를 살피고 기어 다니려고 하기 시작한다.
- 그는 잠투정을 많이 한다! 특히 그가 매우 피곤할 때.
- 그가 처음으로 깼을 때 하품을 하거나 눈을 비빌 때 발견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기 손이나 내 손을 빨거나 핥으려고 하거나, 침대를 긁거나, 눈을 깜빡이지 않거나, 주위를 보거나, 손을 들거나, 자신의 손가락을 잡거나 하며 깨어 있기 위해 많은 행동을 한다.
- 그의 현재 일과는 이렇다:
오전 6-7시쯤 기상, 모유 먹기, 아침 목욕, 걷기, 놀기 / 오전 9-11시 사이에 낮잠, 먹기, 놀기 / 오후 1-3시쯤 낮잠, 먹기, 놀기 / 오후 4시 30분쯤 아주 짧은 낮잠 / 저녁 6-7시쯤 목욕 / 저녁 7-8시쯤 취침

그 외의 기록

- 며칠 전 밤에 솔루는 젖을 먹기 위해 일어났고 나는 화장실을 써야만 했다. 그래서 남편이 그를 안고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모퉁이에 있는 나를 보자 정말 깜짝 놀랐다. 그는 거기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꽤 웃기고 동시에 이상했다. 우리 부부는 그가 특정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 최근에 나는 그가 더워지고 땀을 흘리기 시작하자마자, 에어컨을 보고/빠히 쳐다보기 위해 몸을 뒤집고, 기지개를 켜고, 구부린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가 이 상황을 이해해서 그런 것일까?

사회적/감정적

- 솔루는 매우 행복한 소년이다. 그는 많이 웃고 사람들과 교감한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알아본다. 특히 부모인 우리의 얼굴을. 그가 잠에서 깬 때는 몸을 풀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를 자동차 카시트나 유모차 안에 앉히면 심각한 얼굴을 한다.

건강

- 솔루는 매일 키가 크고 몸이 커진다.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은 그가 월령에 맞게 얼마나 건강하고, 크고, 튼튼한지 언급한다. 그의 가슴과 등에 발진이 있지만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
- 그는 BCG(TB vaccine), Penta 1, and Penta 2 백신을 접종했다. Penta 2 백신을 맞고 그의 왼쪽 허벅지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었다.

이것은 생후 15주 동안 관찰한 나의 작은 아기, 솔루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 나는 이 여정을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

몬테소리 교구와 가구 고르는 법

사람들은 자주 우리의 교실과 집에 있는 아름다운 가구, 몬테소리 교구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1.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쇼핑 비용을 최소화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도록 먼저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필요한 재료와 가구를 찾아보자. 우리 동네에 사는 목공예가에게 교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 보자. 어쩌면 은퇴한 이웃이 패치워크 공과 모빌 만드는 것을 즐길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선 단체나 중고품 할인 매장에서 몬테소리 교구, 바구니를 찾아보자.
2. 중고품을 사자. 우리의 교실과 집이 카탈로그에 나온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다. 중고 가구와 원목 장난감이 우리 집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자.
3.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자. 몬테소리 접근법에 대해 배웠으면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훈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원목 상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쓸모가 있게 만들 수 있다. 아기가 탐험하는 놀이감으로 또는 아기에게 언어를 알려주기 위해 일상용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어쩌면 우리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감 중 몇 개는 장난감 가게에서 산 것이 아니라 주방 찬장에서 온 것일지도 모른다.
4.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는 일반 가정용품점에서 놀라운 발견을 한다. 예를 들면 여닫을 수 있는 상자, 좋은 소리가 나거나 탐험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물건이 있다. 『베이비 몬테소리 육아대백과』를 집필한 주니파의 아기 솔루션이 뱅글 팔찌를 걸어 놓았던 원목 컵홀더처럼 원래 물건의 용도와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든지 있다.
5. 이케아(IKEA) 같은 곳에서 파는 몇 가지 재료는 기본 아이템으로 유용하다. 이 아이템을 다른 물건과 조합하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라이프스타일도 반영할 수 있다. 이케아에는 교구장, 낮은 식탁과 의자, 책 선반과 걸이뿐만 아니라 주방과 욕실에 필요한 물건도 있다.
6.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자. 아기는 기술을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값비싼 원목 장난감을 사는 것보다는 신발 상자에 탁구공 넣기와 같은 활동 교구를 직접 만드는 것이 좋다.
7. 교구를 구매하는 대신 대여하거나 마음이 서로 맞는 가족과 공유하자. 교구를 교대로 사용하거나 교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온라인 부모 모임을 찾아보자. 몬테소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교구를 대여하는 회사를 이용하자. 월말에 교구를 반납하고 아기가 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교구를 받을 수 있다.
8. 몬테소리 교구 박스를 정기 구독하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몬티키즈(Monti Kids)와 같은 몬테소리 교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이런 구독 서비스는 몬테소리 가족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몬테소리 활동 교구를 찾는 일을 쉽게 만들어 준다.
9. 『베이비 몬테소리 육아대백과』의 저자 시모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몬테소리 노트북 자료실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몬테소리 온라인 스토어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자.(<https://www.themontessorinotebook.com/free-resources/>)

움켜잡기 활동 도구 만드는 법

★ 끈에 달린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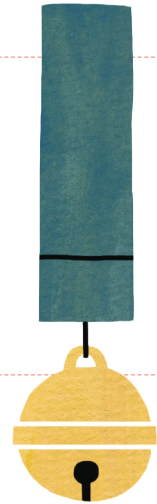
이 활동은 손을 뻗고 움켜잡는 능력뿐만 아니라 청각 발달도 촉진시킨다. 종을 아기의 손이 닿는 곳에 단단히 고정시켜서 아기가 종을 치고, 맛보고, 울리고 잡을 수 있게 한다. 어떻게 어디에(모빌, 옷걸이, 천장) 종을 매달 것인지에 따라 끈과 고무줄의 길이는 달라진다.

재료

- 3cm 너비의 밝은 색상의 끈(새틴이나 벨벳이 좋음)
- 지름 약 4cm의 둥근 징글벨(jingle bell)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아이의 손가락이 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구멍이 없는 종
- 고무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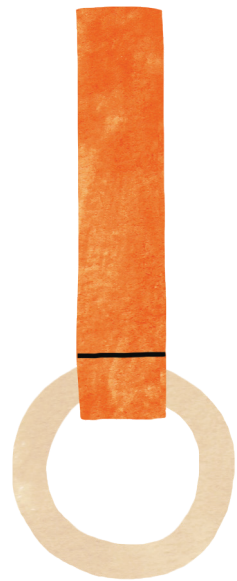
만드는 방법

1. 징글벨 상단에 끈을 끼운다. 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다.
2. 끈의 다른 한쪽 끝을 고무 밴드에 박음질한다.
3. 고무 밴드를 모빌이나 옷걸이, 천장의 고리에 부착한다.
아기가 종을 움켜쥐고 흔들 수 있으므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고 안전하게 부착해야 한다. 아기가 종을 잡고 매달릴 경우를 대비해 아기의 체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단다.



★ 끈에 달린 고리

‘끈에 달린 종’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고리를 끈에 매달거나 종에 고리를 추가할 수 있다. 나무, 은, 플라스틱 같은 다양한 재료는 다양한 촉각적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지름 약 8cm 크기의 원목 커튼 고리나 고리형 치발기(teething ring)를 사용하거나 서로 부딪힐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얇은 금속 뱅글 팔찌 세 개를 사용해도 된다. 고리의 표면이 매끄러운지 반드시 확인한다.



★ 비즈 목걸이 잡기

이 활동은 단순한 움켜잡기 활동의 한 예시이다. 원목 비즈(구멍 뚫린 구슬)로 만들어져 아기는 손과 입으로 이 단순한 재료를 경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반드시 매듭이 단단히 고정됐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재료

- 지름 2cm 크기의 구슬 3-6개
비즈는 페인트칠이나 마감 칠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감 칠은 사포질을 하거나 알코올로 제거할 수 있다.)
- 강한 실이나 가죽끈이나 노끈
- 바늘과 실
- 비고: 비즈의 구멍이 클 경우 노끈의 양쪽 끝에 단추나 원목 원반을 묶어 둔다.
이런 것들은 아름답고 더 많은 촉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만드는 방법

1. 각 비즈의 간격이 1-2cm 이상 되지 않도록 노끈에 비즈를 엮는다.
비즈가 아래위로 움직이지 않고 끈에 쉽게 안착할 수 있게 한다. 비즈 사이사이에 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구멍이 큰 비즈는 단추를 사용하여 묶는다. 작은 구멍은 매듭으로 마무리한다.
3. 끈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실로 바느질한다.

★ 말뚝이나 거치대에 고리 걸기

움켜잡기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아기는 말뚝, 나무로 만든 원형 막대 또는 거치대에 고리를 끼는 것을 즐길 것이다. 이 활동은 아기가 손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고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발달시킨다. 또한 사물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재료

- 키친 타올 홀더, 컵이나 접시 홀더와 같은 원목 기둥/거치대
- 지름이 약 8cm인 팔찌나 커튼 고리

무나리 모빌 만드는 법

무나리 모빌(흑백 모빌)은 보통 우리가 아기에게 선물하는 첫 번째 모빌이다. 이 모빌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기도 오랫동안 집중하게 할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모빌을 활동 매트 위에 매달아 두면 아기가 준비되는 대로 모빌을 즐기기 시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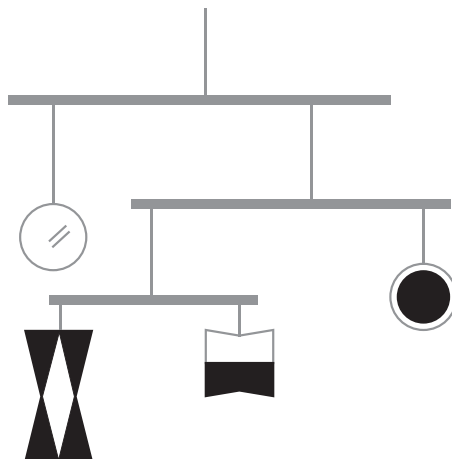
재료

- 무나리 모빌 템플릿
- 지름 7cm의 유리 공 1개
또는 투명한 유리로 된 크리스마스 트리 오너먼트(가볍고 실에 쉽게 매달 수 있어서 적합함)
- 펜 또는 뾰족한 도구
- 명주실
- 지름 5-7mm의 나무 원형 막대 3개(검은색이나 흰색이 이상적이지만 무늬 없는 나무도 괜찮음)
나무는 아래와 같은 길이로 준비한다.
 - 나무 원형 막대 A: 42cm
 - 나무 원형 막대 B: 33cm
 - 나무 원형 막대 C: 21cm
- 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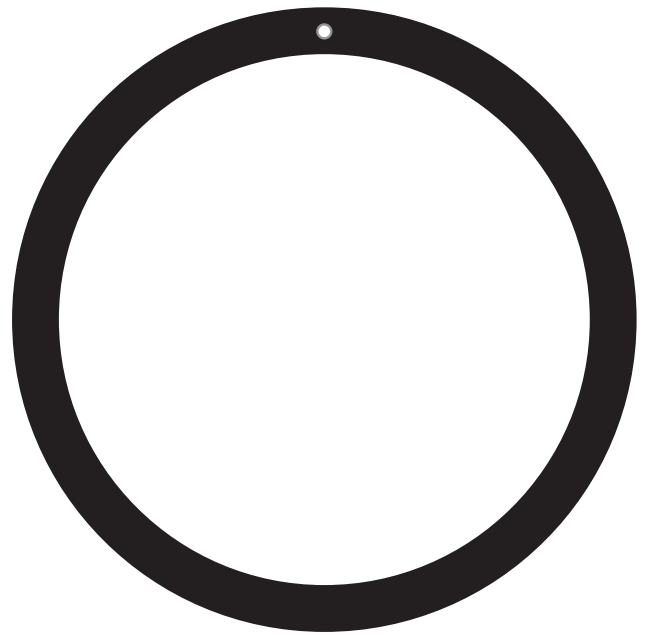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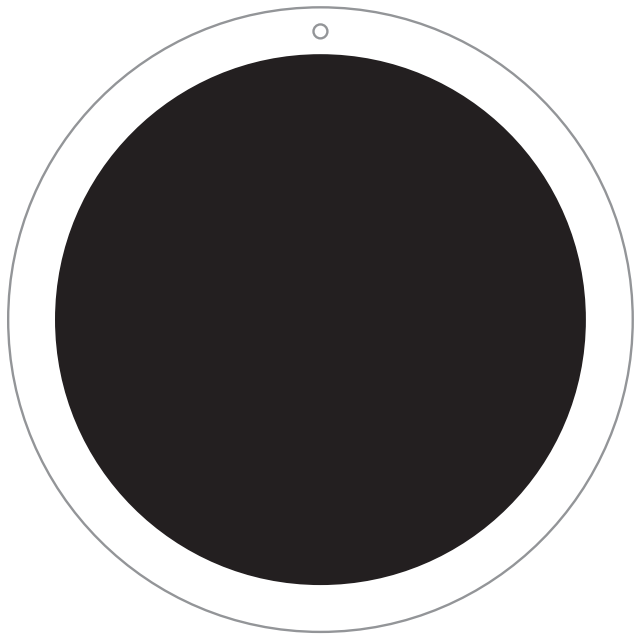
만드는 방법

1. 종이 템플릿을 출력한 후 실선을 따라 자른다.
2. 모양대로 자른 종이 템플릿 2개의 양 끝을 풀이나 테이프로 붙인다.
종이가 말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종이 사이에 두꺼운 종이를 한 겹 덧댄다.
3. 바늘이나 가위로 구멍을 뚫는다.
4.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로 매단다: (좌측 아래부터) 직사각형/정사각형/원/유리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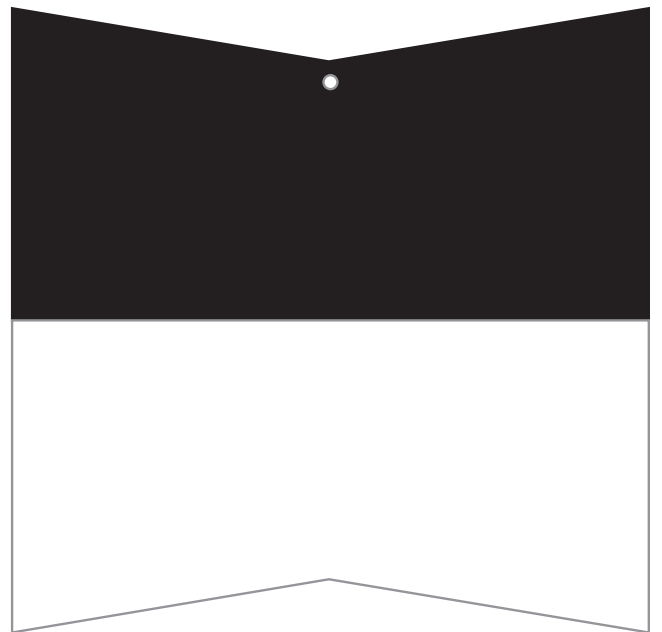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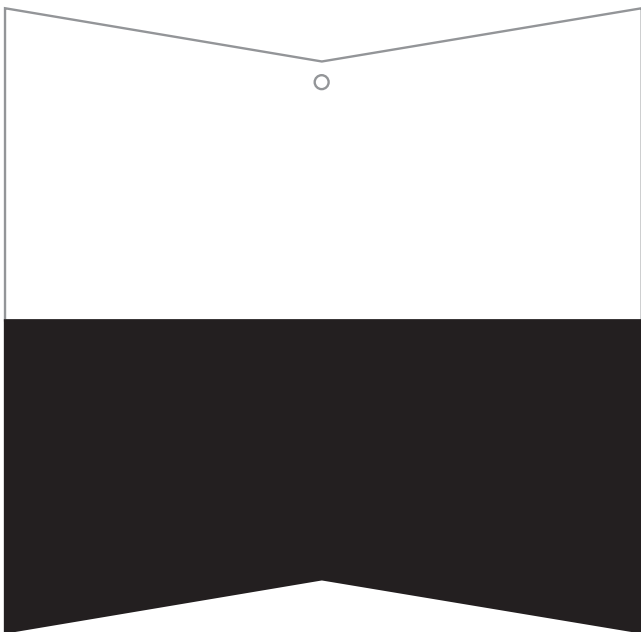
모빌을 거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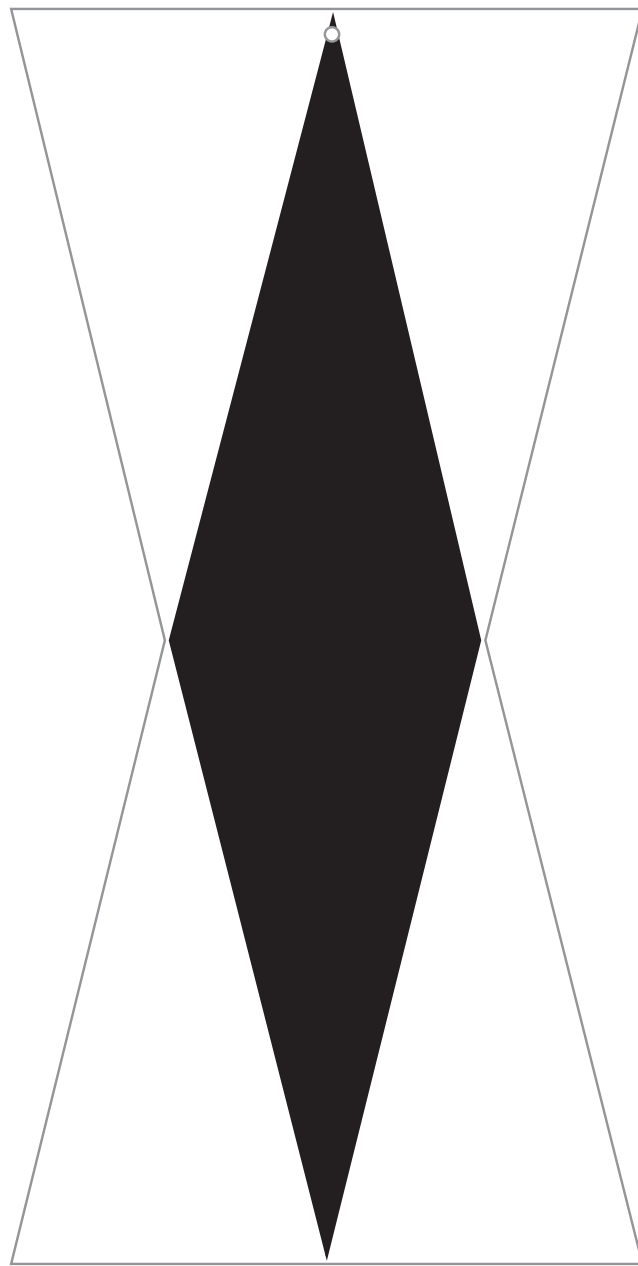
템플릿: 원



템플릿: 정사각형



템플릿: 직사각형



팔면체 모빌 만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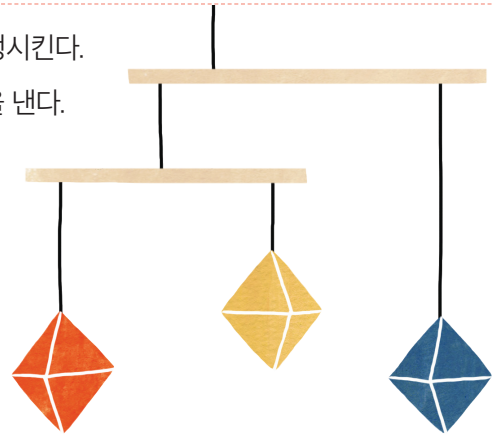
팔면체 모빌은 팔면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기본색으로 칠한다. 팔면체는 종이를 자르거나 접어서 만든다. 광택이 나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종이를 이용한다.(선물 상자를 재활용해도 좋다.) 빛을 반사하는 종이를 쓰면 모빌이 빛을 포착하고 반사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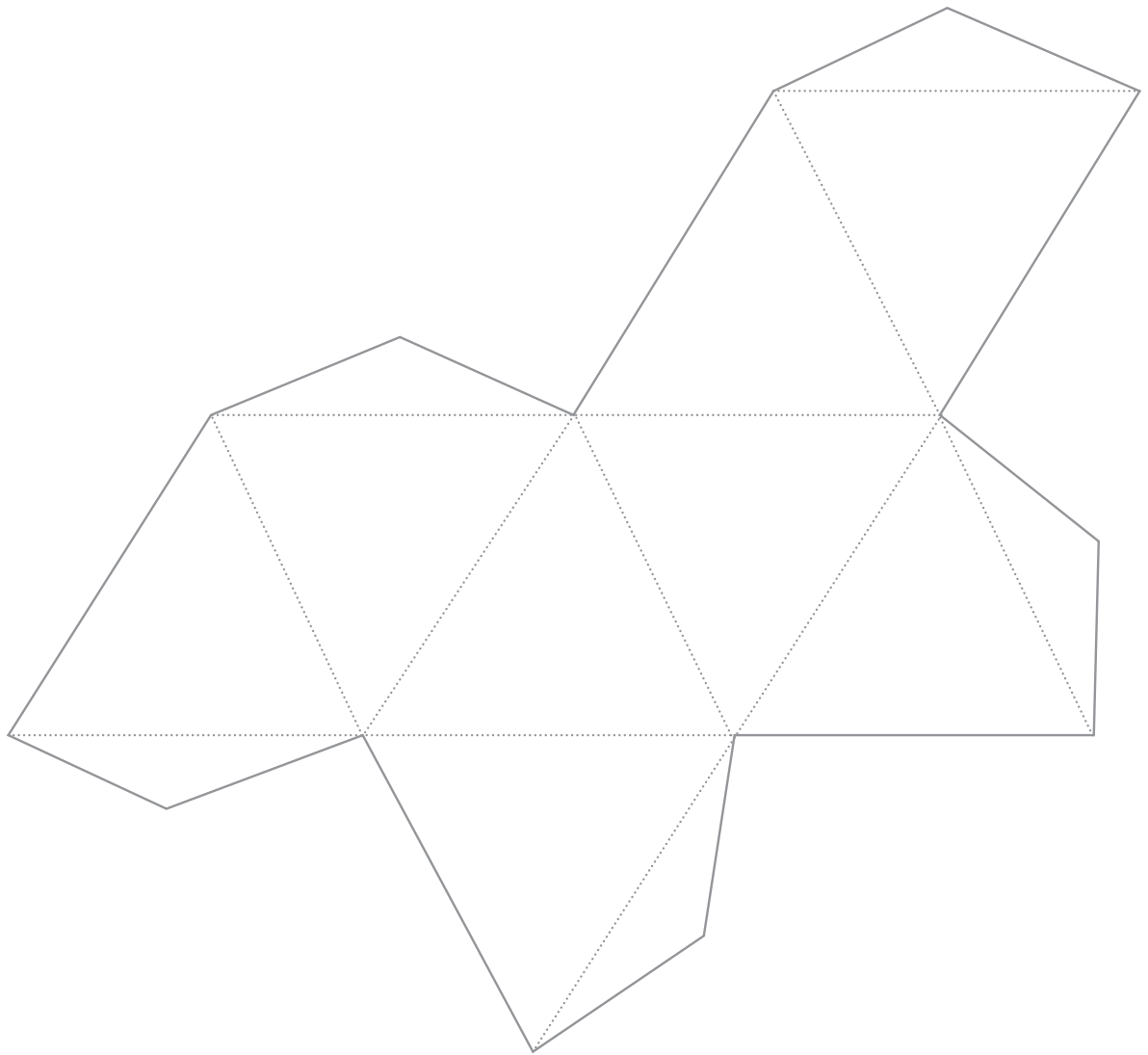
- 팔면체 모빌 템플릿
- 메탈릭 종이 3장 (빨강, 파랑, 노랑)
- 펜이나 뾰족한 도구
- 명주실
- 작은 비즈 3개
- 풀(접착제)
- 가위
- 나무 원형 막대 A: 35cm
- 나무 원형 막대 B: 20cm

만드는 방법

1. 팔면체 모양 템플릿을 메탈릭 종이 위에 올려놓고, 클립으로 고정시킨다.
2. 템플릿의 실선 부분을 펜이나 뾰족한 도구로 깊숙이 눌러 자국을 낸다.
3. 템플릿을 제거하고 실선을 따라 종이를 오린다.
4. 점선을 따라 접는다.
5. 이음새 하나만 남겨 두고, 접힌 부분을 풀칠하여 붙인다.
6. 실의 한쪽 끝에 비즈를 묶는다. 비즈가 달린 실의 끝을 팔면체의 열린 이음새 안에 넣고 풀칠을 하여 닫는다. 비즈는 실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7. 나머지 팔면체 모양 2개도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만든다.
8. 우측 그림처럼 팔면체를 나무 원형 막대에 매달아 묶는다. 매듭에 접착제 한 방울 약간 떨어트려 매듭이 풀어지지 않도록 한다.
9. 아기의 눈으로부터 30-35cm 떨어진 높이에 모빌을 매단다.



템플릿: 팔면체 모양(5cm)



고비 모빌 만드는 법

고비 모빌(색깔 변화 모빌)은 크기가 동일한 다섯 개의 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개의 공은 기본적으로 같은 색상이며 농담이 점차 열려진다. 배열도 농담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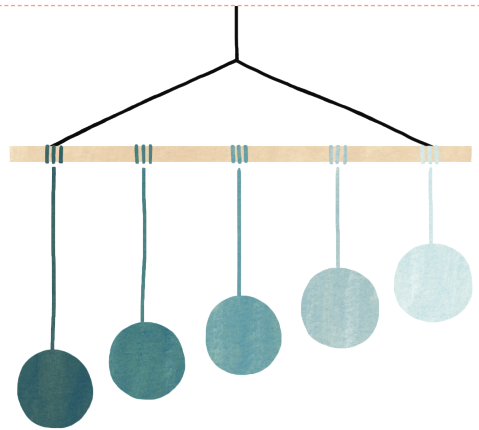
재료

- 스티로폼이나 원목, 부직포로 만들어진 지름 약 4cm의 공 5개
- 자수실 색상은 원하는 것으로 고르고, 같은 계열의 색인데 농담이 점점 열리는 자수실 5개를 준비한다.
(자수실 라벨에서 연속되는 색상 번호를 찾으면 된다.)
- 지름 3-5mm, 길이 25cm인 나무 원형 막대 1개
- 구멍이 큰 공에 바늘 1개
- 뜨개질바늘 또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펜 1개
- 풀(접착제)

만드는 방법

구멍 뚫는 방법

1. 각 공에 지름 1cm의 구멍을 조심히 뚫는다.
2. 자수실을 반으로 자르고 절반을 접어 바늘에 끼운다.
3. 바늘에 끼운 자수실의 매듭을 묶는다.
4. 구멍에 실을 두 겹 겹쳐 넣어 매듭을 구멍 안에 고정시킨다.
5. 구멍을 통과해가며 공을 실로 감는다.
6. 실을 감을 때 약 1cm 정도 간격을 두고
공 전체 표면을 모두 덮을 때까지 계속해서 실로 감는다.
7. 공을 매달 수 있을 만큼의 실을 남겨 놓는다.(실의 길이에 다양한 변화를 준다. 위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라.) 필라멘트나 안 보이는 줄을 사용해도 된다.



유용한 팁

- 이어서 새로운 실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매듭이 구멍 안에 있도록 묶는다.
- 나무 원형 막대는 자수실의 색상과 비슷한 색상의 실로 감는다.

일본식 구멍 뚫지 않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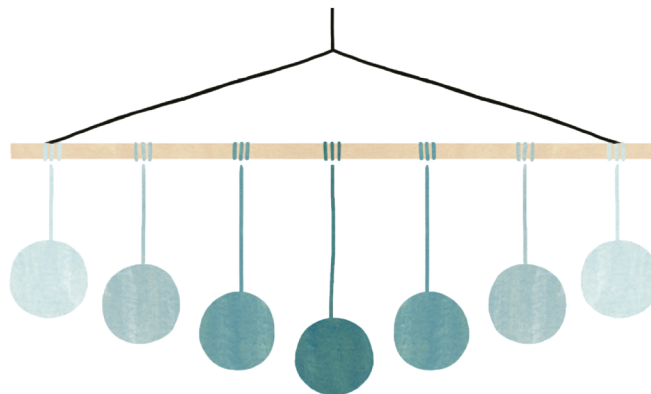
1. 공의 양옆에 핀을 꽂는다.
2. 실이 움직이지 않게 핀에 고정시키고 실로 공을 감는다.
3. 아래부터 위까지 실을 서로 교차하면서 감는다.

모빌에 완성된 공 매달기

1. 가장 옅은 색상(가장 길이가 짧은)부터 가장 진한 색상(가장 길이가 긴)의 공까지 점점 아래로 내려가도록 매단다.
2. 공 사이사이 간격을 같은 너비로 매달아 서로 닿지 않게 한다.
3. 임시로 공을 나무 원형 막대에 묶고 눈금자로 공이 가지런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원하는 각도에 매단다.
4. 공이 적절하게 배치되면 나무 원형 막대에 강한 매듭을 묶고 접착제로 고정한다.
5. 나무 원형 막대의 양 끝에 줄을 부착한다. 모빌의 균형을 잡아 활동 매트 위에 매단다.
6. 아기의 눈으로부터 30-35cm 떨어진 높이에 모빌을 매단다.
처음에는 초점 맞추를 할 수 있도록 모빌을 아기와 가깝게 놓고, 이후에는 더 높게 매단다.

대체 가능한 패턴

이 그라데이션 조합은 모빌의 양쪽에서 시작하여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길이가 길고 색이 진해진다. 어떤 배열이든 가장 진한 색은 가장 낮게 매달아야 한다.



무용수 모빌 만드는 법

무용수 모빌은 몬테소리 시각 모빌 시리즈 중 마지막 단계다. 다른 모빌처럼 이 모빌도 아기의 주의력을 오랫동안 집중시킬 수 있다. 금색이나 은색 그리고 대비를 이루는 기본 색상의 종이를 사람 모양으로 잘라서 만든다. 이 모빌이 움직이면 무용수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름을 무용수 모빌이라고 붙였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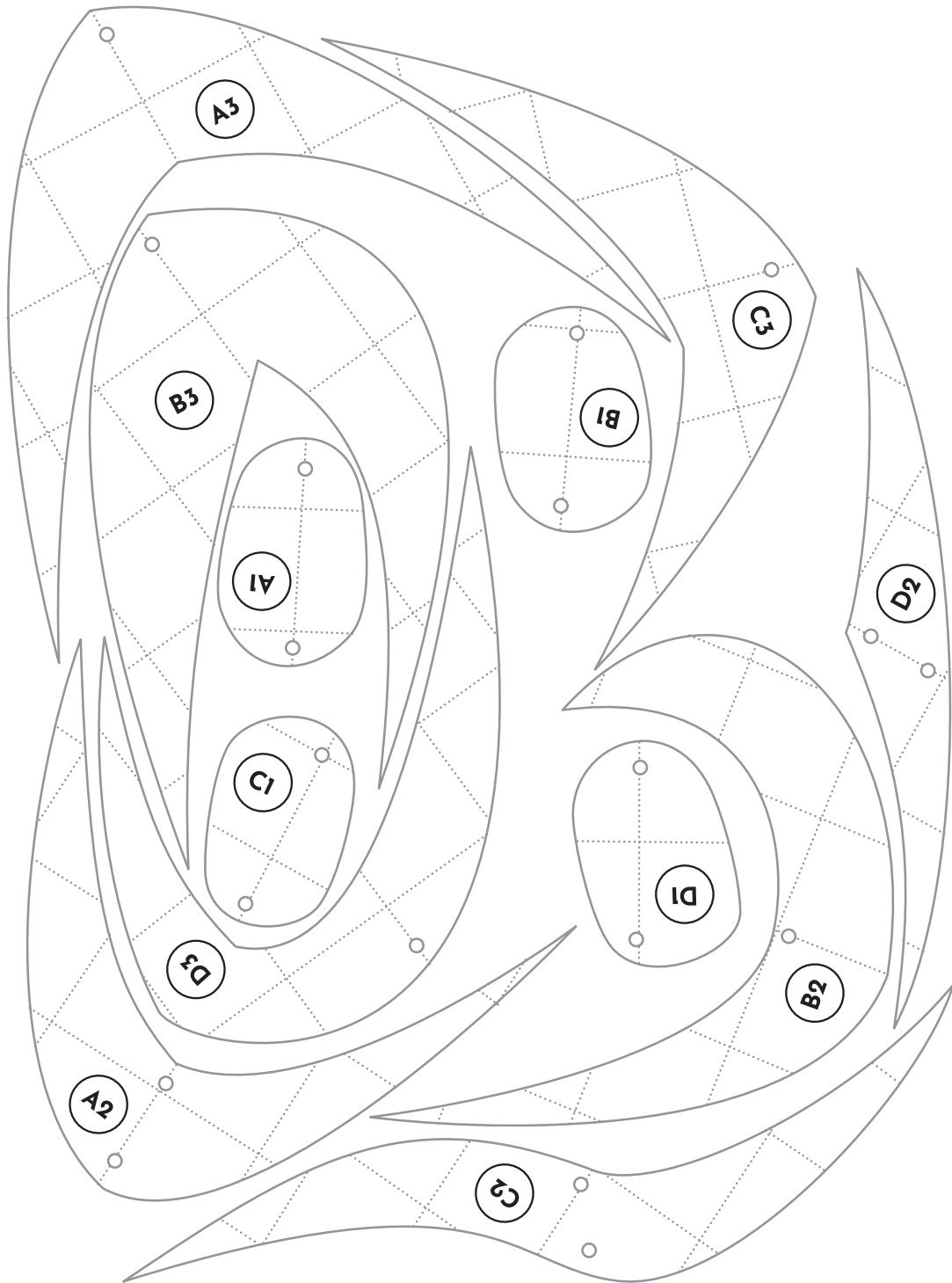
- 무용수 모빌 템플릿
- 대비되는 색상(파란색과 은색)의 메탈릭한 홀로그램 종이 1장
- 명주실
- 바늘
- 지름 5-7mm의 나무 원형 막대 3개(검은색이나 흰색이 이상적이지만 무늬 없는 나무도 괜찮음)
나무는 아래와 같은 길이로 준비한다.
 - 나무 원형 막대 A: 35cm
 - 나무 원형 막대 B: 20cm
 - 나무 원형 막대 C: 20cm
- 풀(접착제)

만드는 방법

1. 홀로그램 종이 두 장을 겹쳐 풀로 붙인다. 종이의 한 면에만 홀로그램이 있다면 무늬가 없는 면끼리 포개서 붙인다.
2. 무용수 모양 템플릿을 홀로그램 종이 위에 올려놓고, 클립으로 고정시킨다.
3. 템플릿의 실선 부분을 펜이나 뾰족한 도구로 깊숙이 눌러 자국을 낸다.
4. 템플릿을 제거하고 실선을 따라 종이를 오린다.
5. 자른 종이 조각은 템플릿에 있는 '영문+숫자'를 참고해 분류한다.
6. 정교한 바늘과 실로 종이 조각을 잇는다.
(A1, A2, A3), (B1, B2, B3), (C1, C2, C3), (D1, D2, D3)
7. 숫자 1이 표시된 종이 조각의 윗부분을 서로 다른 네 가지 길이의 실로 꿰맨다.
8. 우측 그림과 같이 무용수 모양의 종이를 나무 원형 막대에 묶는다.
각 매듭에 접착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한다.
9. 아기의 눈으로부터 30-35cm 떨어진 높이에 모빌을 매단다. 생후 2-3개월이 지나면 더 높게 올려 매단다.



템플릿: 무용수 모양



대상 영속성 상자 만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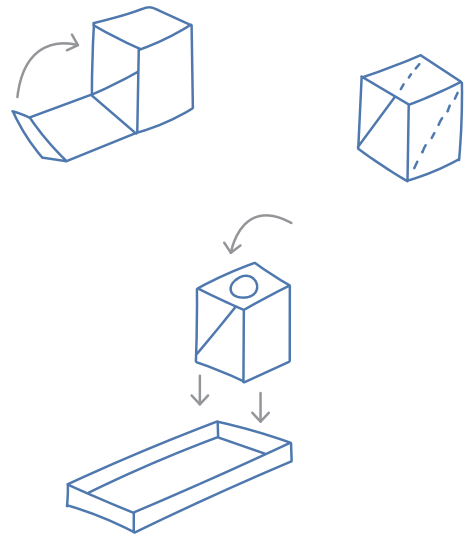
이 활동은 생후 8개월 이상의 아기에게 적합한 재밌는 활동이다. 아기는 공을 구멍에 넣고 공이 굴러 나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다.

재료

- 신발 상자 뚜껑
- 신발 상자 뚜껑 안에 넣을 수 있으며 그 공간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덮개가 있는 작은 상자(정육면체 휴지 상자가 적합함)
- 작거나 중간 크기의 공(위풀볼(Wiffle ball)이 적합함)
- 풀(접착제)
- 가위

만드는 방법

1. 작은 상자의 덮개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 비스듬한 경사가 있는 미끄럼틀 모양이 되도록 한다.
그 모양을 고정시키기 위해 테이프가 필요할 수도 있다.
2. 작은 상자 상단에 원형 구멍을 만든다. 구멍의 크기는 구멍 안에 넣을 공의 크기보다 약간 커야 한다.(우측 그림 참고)
3. 작은 상자의 구멍이 있는 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신발 상자 뚜껑 위에 올려놓는다. 이때 작은 상자를 신발 상자 뚜껑의 한쪽 끝에 남은 공간이 없도록 바짝 갖다 댄다.
4. 작은 상자를 테이프로 고정시킨다.
상자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페인트칠을 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종이 또는 색깔 테이프로 장식해도 된다.



아기가 작은 상자에 있는 구멍 안으로 공을 넣으면 공이 비스듬한 면으로 굴러떨어져 신발 상자 뚜껑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아기가 쉽게 열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상자(또는 용기)를 활용해 상자에 있는 구멍으로 물건을 집어넣는 활동(posting activity)을 할 수 있는 교구를 만들 수 있다.(원기둥 모양의 오토밀 용기가 적합함) 상자의 구멍 안으로 물건을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상자를 열어 물건을 어떻게 꺼내는지 아기에게 보여 주라. 구멍 안에 넣을 물건으로 큰 단추, 작은 공, 빨대, 이쑤시개가 적합하다.

패치워크 공 만드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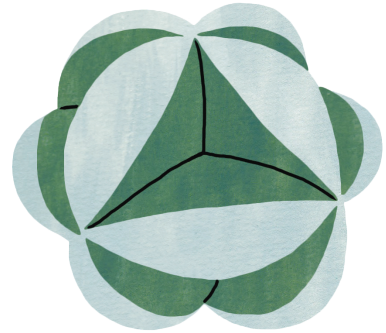
타카네 볼(takane ball)이나 아미쉬 퍼즐 볼(Amish puzzle ball)이라고 불리는 이 공은 아기가 잡기 쉽다. 이 공을 실에 매달아서 아기가 발로 걸어차거나 손을 뻗어 잡을 수 있게 한다.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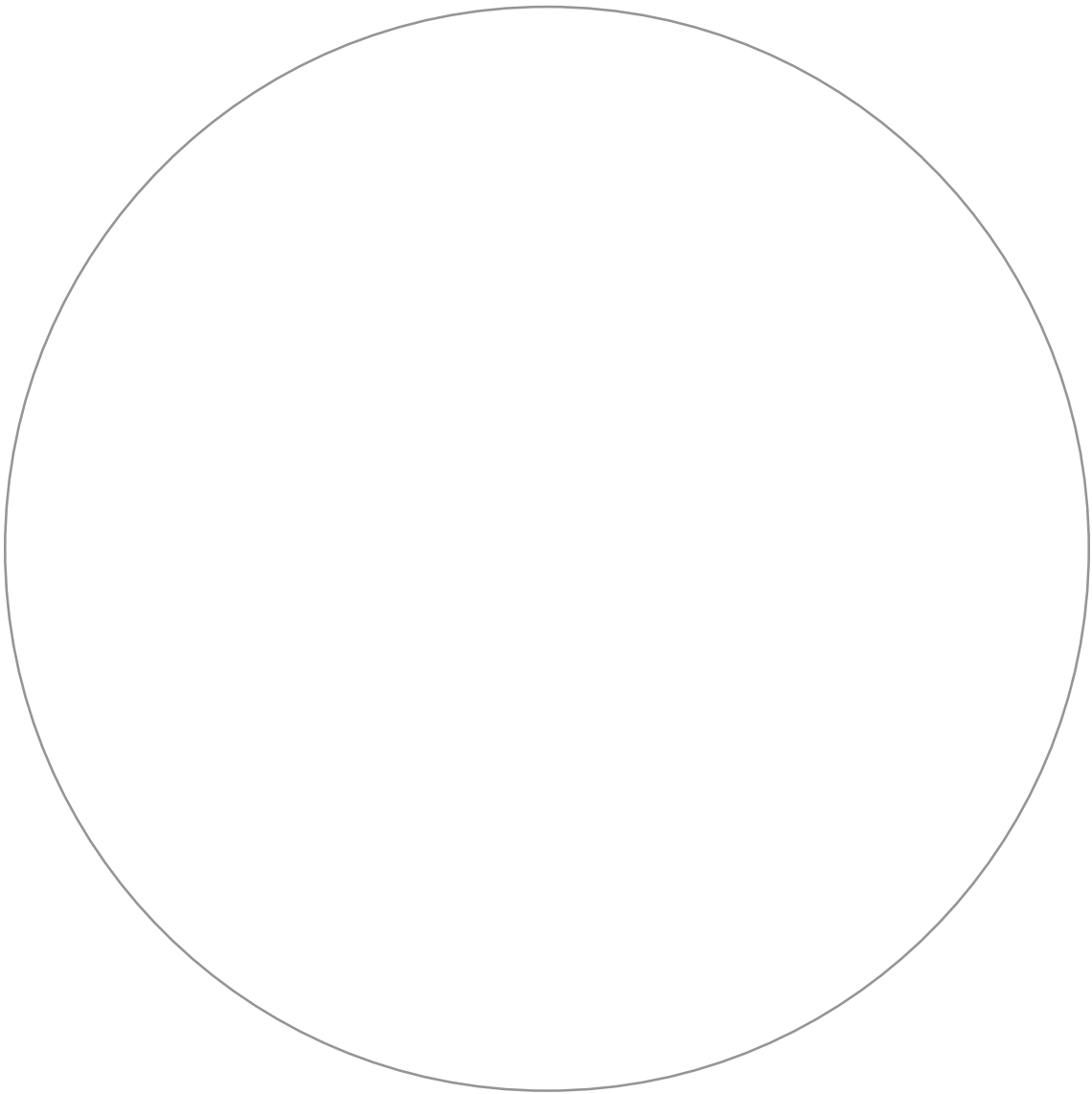
- 패치워크 공 템플릿
- 두 가지 색상의 천 또는 패턴이 다른 천 2종(품질이 좋은 천을 사용한다.)
- 부드러운 면 소재의 충전재
- 바늘과 실
- 가위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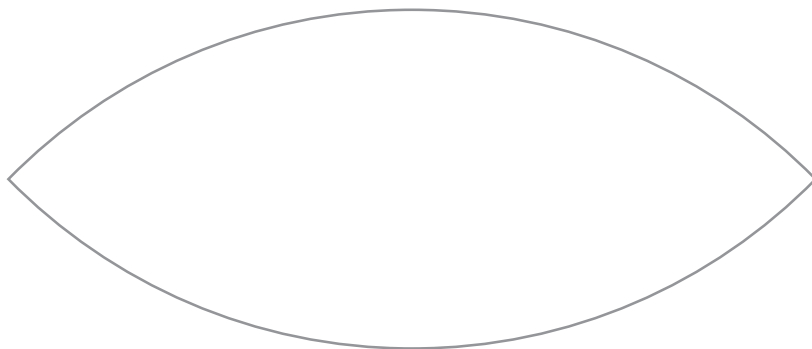
1. 패치워크 공 템플릿 A를 천 위에 올려놓고 잘라서 원 6개를 만든다.
2. 원을 반으로 접고 접힌 선을 따라 잘라서 반원 12개를 만든다.
3. 패치워크 공 템플릿 B를 다른 색상이나 패턴의 천 위에 올려놓고 잘라서 렉비공 모양 12개를 만든다.
4. 렉비공 모양의 호를 반원의 호와 나란히 하여 곡선 부분의 가장자리가 서로 닿게 한다.
두 모양의 천이 서로 이어지도록 박음질하여 원뿔 모양으로 만든다.
5. 위의 방법을 반복하여 원뿔 모양 12개를 만든다.
6. 각각의 원뿔 모양 안에 충전재를 넣는다.
7. 손바느질로 벌어진 양쪽을 꿰맨다. 7mm가량의 여유분(솔기)을 남기고 봉합한다.
8. 모든 조각을 조립하여 공을 만든다.



템플릿 A. 동그라미 모양



템플릿 B. 럭비공 모양



토폰치노 만드는 법

많은 부모가 툼으로 만든 얇은 베개, 토폰치노(topponcino)를 아기 용품 중 최고 애장품으로 꼽는다. 토폰치노는 출생 후 공생 기간에 가정에서 아기가 변화를 겪을 때 도움을 주는 용품이다. 천연 섬유로 만들어졌고 아기보다 조금 더 길고 너비도 약간 더 넓다. 아기를 눕히거나 안을 때 사용한다. 토폰치노는 아기의 기준점이 될 수 있고 보호 장비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기는 이 얇은 쿠션에서 안전함을 찾고 익숙한 냄새를 맡는다. 바로 자신과 부모, 가족, 다른 형제자매에게서 나는 냄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기를 다룰 때 토폰치노는 과도한 자극을 막아 준다.

재료

- 토폰치노 템플릿
- 연필이나 지워지는 패브릭마카
- 시침핀
- 면 100% 툼 솜(batting): 229x275cm, 퀸사이즈 이불로 토폰치노 2개를 만들 수 있다.
- 매트리스 커버로 사용할 면 100% 브로드클로스(broadcloth) 또는 더 두꺼운 천: 112-114cm 너비 천 1마
- 토폰치노 커버(sham)로 사용할 피마 코튼(더 얇은 천) 100%: 천 2마로 토폰치노 커버 2개를 만들 수 있다.
- 펀칭 자수 원단(eyelet): 약 4cm 너비 천 1마
- 툼 솜과 매트리스 커버를 매듭지을 때 쓸 광택이 있는 면사
- 바늘과 여분의 바느질 실

패턴 준비하는 방법

1. 두꺼운 종이나 종이봉투 위에
길이 65cm, 너비 45cm 모양의 타원 패턴을 그린 후 자른다.
2. 타원 패턴을 세로로(긴 쪽으로) 반을 접었다 편다.
접힌 자국이 있는 부분(중앙선)을 연필로 표시한다.(총 1개)
3. 타원 패턴을 편 상태에서 양쪽 가장자리를 중앙선에 맞춰
세로로 접는다. 접힌 자국이 있는 부분을 연필로 표시한다.(총 2개)
4. 툼 솜이 매트리스 커버 안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연필로 표시한 선(총 3개)을 따라 꿰맬 것이다.



NOTE

바느질하기 전에 툼 솜을 제외한 모든 천을 세탁하고 건조한 후 다리미질한다.
차갑거나 따뜻한 물로 세탁하고 건조기(섬세 코스로 세팅)로 말린다.

매트리스 만드는 방법

1. 퀼팅 솜을 가능하면 최대한 매끄럽게 편다.
2. 퀼팅 솜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어 8겹이 되게 한다.
3. 타원 패턴을 퀼팅 솜에 핀으로 고정시킨다.
4. 연필이나 패브릭마카로 퀼팅 솜의 맨 위의 겹에 타원 패턴과 표시선(바느질 선, 총 3개)을 그린다.
5. 타원 패턴을 제거한다.
6. 긴 한 가닥의 면실을 사용하여 정중앙부터 시작하여 표시선을 따라 퀼팅 솜 8겹을 모두 통과하여 박음질한다.
실 끝에 있는 매듭이 보이지 않고 아기가 느끼지 않도록 매듭을 퀼팅 솜 사이에 넣는다.
2-3cm 간격으로 등성등성 시침질을 한다.(baste 여러 겹을 맞대어 등성등성 바느질한다.)
7. 표시선 총 3개를 모두 바느질한 후 퀼팅 솜을 타원 패턴대로 자른다.(이때 매듭을 조심한다.)
8. 잘라낸 퀼팅 솜을 브로드클로스 위 한 쪽으로 둔다. 브로드클로스를 퀼팅 솜 위로 접을 때 브로드클로스의 두 겹 사이에서 퀼팅 솜이 정중앙에 자리하도록 한다.
9. 시침핀을 브로드클로스 위에 퀼팅 솜 가장자리를 따라 고정시킨다.
퀼팅 솜을 놓다 뺏다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약 20cm 정도의 입구를 만든다.
10. 시침핀 옆 주위로 퀼팅 솜 가장자리를 시친다.
시침핀과 퀼팅 솜을 제거한다.
11. 시침질한 부분을 따라 옆에 재봉틀로 박음질한다.
12. 퀼팅 솜을 다시 놓고 포근하게 꼭 맞는지 확인한 후,
다시 꺼내 놓는다.
13. 퀼팅 솜이 매트리스 커버에 완벽하게 맞아
브로드클로스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면
시침질 한 바늘땀을 제거하고 재봉틀로 한 박음질에서
약 2cm 정도 남기고 브로드클로스를 자른다.
14. 박음질에서 너무 가깝지 않도록 곡선 부분에 가위집내고
매트리스 커버를 안과 밖이 반대로 되게 뒤집는다.
15. 매트리스 커버를 다림질하고 안에 퀼팅 솜을 다시 집어넣는다.
16. 넣는 입구가 표시가 나지 않게 공그리기(blind stitch)로 마무리한다.
17. 우측 그림에서 보이는 점 부분에 면사 한 가닥으로 바느질하여
이중 매듭을 하고 나비매듭을 묶는다.
이렇게 하면 퀼팅 솜과 매트리스 커버를 함께 묶어 놓을 수 있다.



토폰치노 커버 만드는 방법

1. 피마 코튼을 다리미질한 후
위 아래 양쪽 끝에 약 3cm 길이의 얇은 단(hem 천의 끝 가장자리를 안으로 접은 부분)을 바느질한다.
접히는 부분은 모두 원단의 뒷면이어야 한다.
2. 피마 코튼의 접힌 단이 있는 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여 평평한 표면 위에 놓는다.
3. 완성된 매트리스를 피마 코튼의 2/3 지점에 놓는다.
4. 피마 코튼의 짧은 끝부분은 매트리스의 끝 위로 접는다.
피마 코튼의 긴 끝 부분은 짧은 끝부분과 매트리스 끝 위로 접어서
밑단이 있는 양쪽 끝부분이 매트리스 위에 겹치도록 한다.
시침핀을 꽂아야 하기 때문에 접힌 부분은 적어도 매트리스의 가장자리로부터 3cm 떨어져야 한다.
5. 접혀 있던 짧은 부분을 펴고 피마 코튼에 매트리스의 윗부분 모양을 따라 그린다.
6. 펀칭 자수 원단의 레이스가 있는 가장자리 부분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여 표시선에 맞춰 핀으로 고정시킨다.
펀칭 자수 패브릭의 양끝을 약간 바깥쪽으로 뒤집고 핀으로 고정한다.
7. 나머지 접힌 부분 아래로 짧은 부분을 다시 접어 넣고, 피마 코튼을 매트리스 주위에 핀으로 고정시킨다.
8. 매트리스 주위를 시침질한다.
윗부분에는 펀칭 자수 원단(테두리 말고)과 다른 두 겹의 피마 코튼도 함께 시친다.
9. 핀을 제거한 후 뒷면에 만든 입구를 통해서 매트리스를 뺀다.
그리고 시침질한 선을 따라 재봉틀로 박음질한다.
10. 매트리스 커버를 안과 밖이 반대로 되게 뒤집고 매트리스를 넣는다.
매트리스가 잘 맞고 펀칭 자수 원단이 괜찮아 보이고 수정이나 보완할 필요가 없다면,
매트리스를 빼고 커버를 다시 뒤집고 시침질을 제거한다.
11. 박음질한 부분에서 약 3cm가량 떨어지게 자르고 곡선의 가장자리를 잘라내라.
12. 커버를 다림질하고 매트리스를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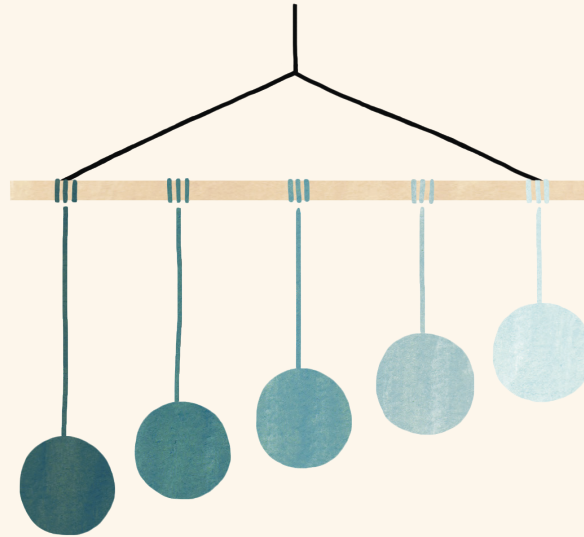
IT'S TIME TO CHANGE THE WAY WE SEE BABIES.



JULY 2021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ABIES LEARN WITH ALL OF THEIR SENSES.



AUGUST 2021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FROM DEPENDENCE, TO COLLABORATION, TO INDEPENDENCE.



SEPTEMBER 2021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GENTLY, MINDFULLY, AND SLOWLY.



OCTOBER 2021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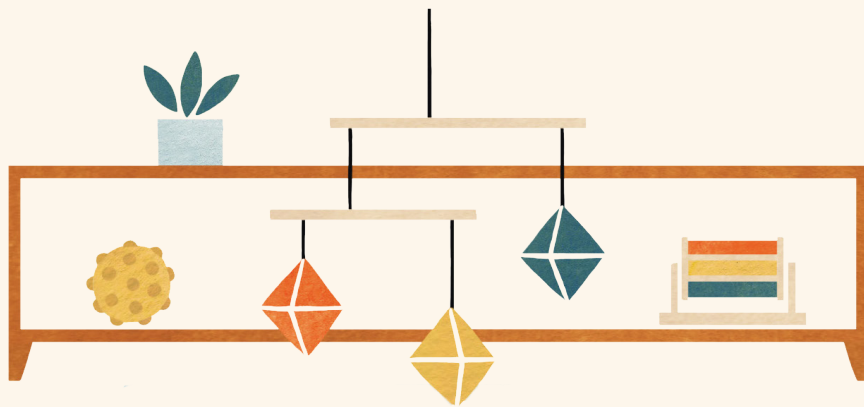
CREATE A
SIMPLE, BEAUTIFUL,
INVITING SPACE FOR
EXPLORATION.



NOVEMBER 2021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REMEMBER TO PAUSE,
OBSERVE, ASK, THEN
RESPOND.



DECEMBER 2021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FIND MOMENTS OF
CONNECTION AND JOY,
AND ENJOY THE JOURNEY.



JANUARY 2022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BABIES ARE LIKE SEEDS, AND
PARENTS ARE LIKE GARDENERS.
WE PREPARE THE SOIL AND
PROVIDE NURTURING, AND
THEY DO THE BLOSSOMING.**



FEBRUARY 2022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LET'S OBSERVE TO
SEE WHAT OUR BABY IS
PRACTICING RIGHT NOW.



MARCH 2022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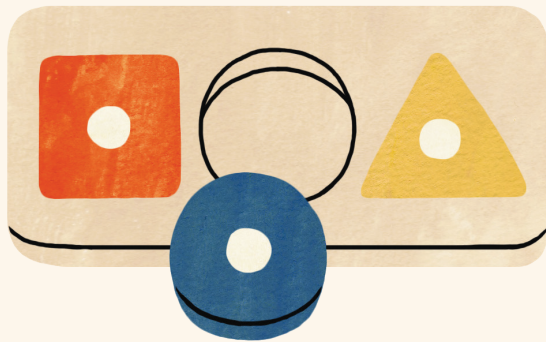
BABIES LEARN
SO MUCH BY BEING
OUT IN NATURE.



APRIL 2022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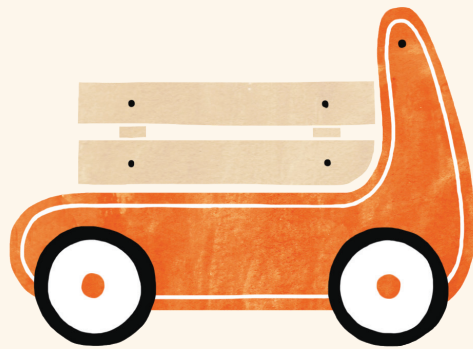
WE NEED FEWER THINGS THAN WE THINK.



MAY 2022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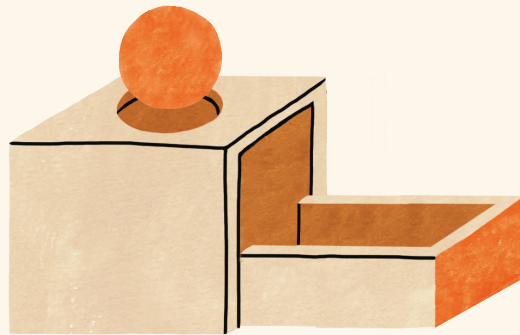
GIVE BABY FLOOR TIME
TO EXPLORE THEIR
BODIES, THEIR SPACE,
AND THEIR WORLD.



JUNE 2022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NJOY SIMPLE
CONVERSATIONS WITH
BABY, ALLOWING THEM
TIME TO RESPOND.



JULY 2022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아기와의 연결을 돕는 간단한 체크리스트



수유

- 아기와 피부를 맞댄다.
- 아기와 시선을 맞춘다.
- 아기의 신호를 관찰하고 그에 맞춰 대응한다.

양방향 소통

- 우리가 하는 일을 아기에게 알려 준다.
- 아기의 반응을 기다린다.
- 아기의 반응을 우리 행동에 반영시킨다.



부드러운 손길

- 아기를 다룰 때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다.
-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등을 할 때 아기와 협력한다.

양질의 시간

- 수유, 기저귀 갈아 주기 같은 활동을
아기와 연결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
- 시간을 내 관찰해서 아기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
-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아기를 안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낸다.



아기가 보내는 편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보조 양육자에게

저를 보러와 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은 제게 특별해요.

저를 대할 때는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들어 올리기 전에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봐 주고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제가 포옹이나 보보를 좋아하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제가 등을 구부리거나, 다른 데를 보거나, 울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분 나뉘하지 마세요. 저는 친해지려면 가끔 시간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저귀를 갈아 주거나, 먹여 주거나, 목욕을 시켜 줄 때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라고 말해 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처음 만졌을 때처럼 그렇게 제 몸을 대해 주세요. 저한테는 아주 새로운 일이거든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이렇게 연결되는 순간을 좋아해요.

저한테 말해 주세요. 제가 어떤 소리를 내면 그걸 똑같이 따라해도 좋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관해 말해 주세요. 나무, 꽃, 채소의 이름을 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저는 노래하는 목소리를 좋아하지만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내는 소리를 흉내 내서 “구구, 가, 가가” 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말해 주세요. 아무튼 나는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말해 달라고 했지만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조용한 것을 좋아해요. 제가 손이나 발가락, 나뭇잎, 딸랑이, 모빌, 공을 탐색하고 있으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때처럼 저한테도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넘어져서 울면 낚다 달려와서 들어 올리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 순간을 느끼게 놔 두세요. 넘어지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중이니까요. 괜찮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오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것 같으면 안아 줘도 괜찮은지 먼저 살펴봐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거나 울지 말라 하고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말아 주세요. 그런 감정을 내가 처리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놀랐느냐고 물어봐 주기만 해도 돼요.

제가 울면 그건 무엇인가에 대해 소통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무시하지 말아 주세요. 그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이 들기 힘들어서 울고 (가끔은 위안을 주는 손길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자극이 많을 때도 울어요.(위로해 주고 자극을 없애면 도움이 돼요.) 새로운 것을 해 보고 싶을 때도 울어요.(이 때는 다른 공간에서 또는 다른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배가 아파도 울지요.(그러면 다리를 들고 있어요. 『베이비 몬테소리 육아대백과』 238쪽에 나온 배앓이와 반사 부분을 참고해 메모해 두세요.) 기저귀가 젖었거나 응가를 해도 울어요.(이때 몸의 느낌이 참 이상해요.) 몸을 긁는 옷(술기가 없는 부드러운 옷이 좋아요. 옷에 붙어있는 상표 같은 것도 괴로울 수 있어요.)을 입고 있거나 누워 있는 담요에 주름(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울퉁불퉁한 통나무에 누워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이 있어도 울어요. 집 안에 움직임이 많아도 울지요.(형이나 누나가 좋긴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곳이 어디 없을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너무 움직임이 없어도 울어요.(나무 아래 누워서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걸 좋아하지요.) 우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울고(위장이 그걸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딱히 눈에 띄는 이유없이 그저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길 바라지요.

가능하다면 도와주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세요. 너무 많이 도와주면 저 스스로 이 멋진 발견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예 안 도와주면 저는 주변 세상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적절한 균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탐험을 할 수 있게 바닥에 내려놔 주세요. 아니면 밖으로 데려가 주세요. 자연은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제게 나눠 주세요. 노래를 불러 주고, 악기를 연주하고, 정원에 나가 구근 심는 것을 보여 주세요. 뜨개질이나 나무 깎는 것을 보여 주어도 좋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나 카드 게임을 가르쳐 주거나 옛날이야기를 해 주어도 좋아요.

물리적인 선물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반짝거리지 않고 시끄러운 노래가 나오지 않는 간단한 놀이감이 더 좋아요. 저는 생각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해요. 이와 관련해 『베이비 몬테소리 육아대백과』 6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장난감이나 아기 용품을 파는 상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영상이나 화면을 좋아하지 않아요. 잠자기에 빛이 너무 세거든요. 그보다는 실제로 만지고 입에 넣어 볼 수 있는 물건이 좋아요. 입 이야기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지금 입을 이용해 세상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넣게 해 주세요. 안전하지 않은 것이라면 빼 주고요.

저를 보고 미소 지어 주세요. 같이 웃고, 제 눈을 깊이 바라봐 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